



테니스는 짱맛!

글 □ 정석영(대한결핵협회 홍보전략팀장)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면 “오늘 공치실거죠?”라고 묻는다. “예, 지금 나가요”하고 라켓을 챙겨 코트를 향한다. 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다. ‘예전 공부할 때 이 정도로 열심히지’ 하는 생각에 피식 가벼운 웃음이 난다.

20여 년 전 처음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선배님들께서 단체로 테니스 라켓을 구입해서 레슨을 받으러 다니시는 등, 사내에 테니스 붐이 조성되었었다.

그 당시 내 생각엔 테니스라는 운동은 귀족 스포츠인데, 협회에서 이정도 취미생활은 보통인 양 여겨지는 걸 보고 ‘이 직장 참 관찮은 곳이구나.’ 하며 내심 회사를 잘 택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선배님들 모두 작심삼일, 활동이 흐지부지 되어버려서 나 또한 그렇게 ‘테니스’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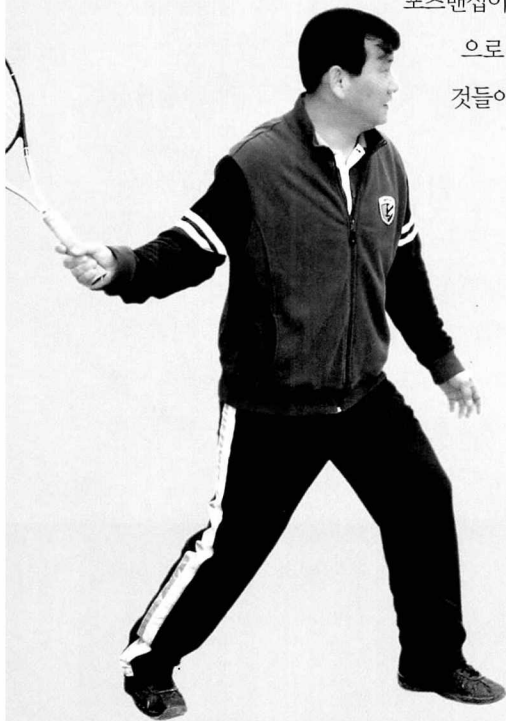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테니스라는 운동에 호기심이 생겨 주위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니, 사교활동에도 그만한 게 없고, 생각보다 경제적인 운동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내 마

음을 사로잡은 것은 테니스가 매너를 중시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코트를 절대 넘어서 다니거나, 덤다고 윗옷을 벗는 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운동임을 알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정식으로 해봐야지'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테니스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테니스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세 프랑스 'जू드뽀뽀'라는 놀이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테니스'라는 언어의 기원도 확실치 않으나 프랑스로 '테린다'라는 단어인 'Tenze'의 발음을 1360년 경 영국인들이 이 운동을 본 국에 처음 소개하면서 'Tennis'라는 문자로 사용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즉, 프랑스 '뽀뽀'가 프랑스로부터 도버해협을 건너가 영국에서 발달하여 오늘날의 '테니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테니스를 귀족 스포츠라 부르는 이유는, 영국에서는 15세기부터 스포츠맨십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왕실을 중심으로 한 테니스 경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엄하게 지켜졌다고 한다.





▲ 아파트 주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동우회원들. 테니스에 심취한 그들의 얼굴에 스트레스는 찾을 수 없다.

처음에는 코트가 실내였기 때문에 코트 설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왕족, 귀족 등의 부유층들만의 운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러한 움직임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특정계층,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스포츠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 테니스의 역사 또한 간단히 소개하면 1900년대 초 일본 관리들이 들여온 연식정구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53년 대한테니스협회가 출범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여러 세계대회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테니스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반 까지도 상당히 많은 동호회가 존재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최근 골프의 인기와 대중화로 인해 테니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 테니스를 접했을 때부터 꾸준히 테니스를 쳤다면 아마 아마추어 상 위레벨은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그 동안 30대, 40대 중반에 이르기 까지 인생

을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내세울 취미하나 살리지 못하고 보낸 세월
에 대한 안타까움은 말로 해서 무엇 하랴.

하지만 최근 들어 주 5일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지금까지의 여가 생활
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찾아왔다.

지금껏 나의 여가생활은 건강을 위한 휴식이 아닌,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었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다시 테
니스 라켓을 잡게 되었다.

테니스 레슨을 시작하며 하나 둘 씩 알게 된 아파트 주민, 동우회 회원들
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테니스 코트에 나온 그들의 얼굴을 보면 힘든
일상으로부터의 스트레스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나이스 샷!’, ‘굿 샷!’ 이
라는 감탄사는 누가 시켜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스포츠에 심취하면 자연
스럽게 나오는 탄성들, 테니스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묘미가 아
닐까 한다.

운동에 있어 모두가 수준급이 될 수 없듯이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끼리, 좀더 나은 플레이를 위해 더 노력하고,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
니스라는 매개체가 더불어 사는 우리네 인생사에 있어 적지 않은 활력소가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다른 클럽 동우회 사무실에 걸려있는 테니스 10계명 중 기억나는 문구들
이 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테니스를 치면 꿈을 이룬다.”,
“가장 위대한 테니스인은 남들이 잠자고, 술 마시고 있을 때 만들어 진다.”

나에게 있어 재미있으면서 참 공감되는 문구였다. 이제 나도 그만 술 딱
끊고, 잠도 줄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테니스를 사랑하며 살고 싶다.

언젠가 어느 분이 물으시길, 테니스는 무슨 맛으로 치냐고. ‘글쎄요’ 라
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공치면 땀나지? 땀이 무슨 맛이야? 짠 맛
아니야?” 라고 하시며 껄껄 웃으셨다. 그래 바로 그 맛, 짠 맛 보러 오늘도
테니스 코트로 달려간다. †